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여름공동체생활 중요 일정 안내

- 1) 27일(목) 오후 6:30 저녁식사 시간부터 시작.
저녁 모임 코이노니아(1) 마치고 귀가.
- 2) 28일(금)은 방별로 방별공동체생활 일정 진행.
29일(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전체 모임.
- 3) 30일(일) 주일공동예배 및 오후 일정
주일공동예배 중, 성찬식과 물질의 나눔 진행.
오후에 40주년 준비와 선교후원회 시간 진행.
저녁식사 후, 강강술래 순서로 마칩.(오후 8시)

-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2023 한마당 대잔치가
8월 17일(목)~19일(토) 포항 양포YPC수련원에서 모입니다.

- 생활공동체 전체 모임이 26일(수) 12:00에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30 호

2023년 7월 2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故 주선애교수의 열매

‘분노 못’ 뚝방촌 아이들, 사랑과 인내는 변화 가져와

1970년대 우리나라는 급작스러운 산업화 과정에 들어서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산됐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은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었는데 무척 남루한 차림의 초등학교생들이 줄지어 다녔다. 하루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 궁궁해 뒤따라가 봤다. 한강 쪽으로 몇 분쯤 걸어가자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천 세대의 판자촌이 독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독 너머에는 강 쪽으로 다시 독을 쌓고 거기에 서울 시내 분노를 모두 쏟아부은 ‘분노 못’이 형성돼 있었다.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허가 판자촌은 공중에서 사진을 찍어 보고 새집이 생기거나 확장될 경우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다고 했다. 막대기를 세우고 모래를 채운 가마니로 막아놓은 화장실은 몇 곳 있었지만, 도저히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다. 결국 사람들은 인근 밭에서 용변을 봐야 했고 파리가 새까맣게 온 마을을 덮었다. 나는 마음이 슬퍼서 지금의 성산대교 근방 독에 서서 울었다.

다음 날 나는 학부 기독교교육과 3학년 강의실에서 망원동 뚝방촌 사람들의 참혹한 삶을 본 대로 전했다. 강의 후 서너 명의 학생이 따라 나오면서 “저희가 한 번 가볼 수 없겠습니까” 하며 위치를 물었다. 학생들은 그날로 동네를 찾아갔고, 학생들도 눈시울을 적셨다고 했다. 학생들은 이후 하루에 100원짜리 방을 얻었다. 그 동네 한복판에 있는 비닐 창문의 한 칸짜리 온돌방이었다. 이상양 정태일 기현두 고애신 4명 학생은 그 방에서 같이 먹고 자며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동네에 환자가 생기면 업어서 병원에 가기도 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화장실을 짓는 일이었다. 관청에서 못 짓게 할 것

을 알고 밤마다 전깃불을 켜놓고 조금씩 지었다. 땅을 길게 파고 시멘트로 화장실을 지었다. 다음은 더러운 개울 위로 다리를 놓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밤마다 몰래 노동을 했고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학교까지 다녔다. 그 팀의 단장인 이상양은 폐결핵 환자였다. 성품이 부드럽고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겨 동네에서는 ‘천사 전도사’란 이름으로 불렸다. 이 전도사에게 등록금을 하라고 돈을 주면 금방 뚝방촌 사람들을 돕는 데 다 써 버렸다. 학교에 갈 버스비가 있을 리 만무했다. 그는 분노 처리장에 드나드는 성동구의 분노차 기사에게 부드럽게 찾아가 대화하고 전도하며 사귀었다. 차량은 주로 한강 독 위로 다니기 때문에 광나루까지 동선이 이어졌고 기사는 이 전도사를 차량으로 태워다 주곤 했다.

한 번은 내게 “교수님, 버스 차장들(시내버스에서 문을 여닫으며 손님을 태우고 내리던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문을 여닫는지 아세요?”라고 물었다. 내가 알 리 없었다. “1400여번이래요.” 이 전도사는 늘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우리는 공부를 중단한 아이들을 위해 18㎡(약 9평)짜리 공간에 세를 얻어 장로회신학대에서 낡은 의자를 가져와 야간 중학교를 만들었다. 첫날 수업을 시작하기 전 먼저 기도하자고 했더니 기도시간에 분필이 날아오는 등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 전도사가 없는 돈으로 밥을 지어놓고 심방을 가면 아이들이 와서 먼저 다 먹어 버리곤 했다.

하지만 교육은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2~3년 후엔 공장에 나가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전 자기들이 반찬을 사서 저녁을 지어놓고 이 전도사를 위해 저녁상을 차렸다. 사랑과 인내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았다.

< 2019. 7월 17일.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 >

한주간의 말씀

“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
<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22 543 449 / 212

기도 :

성경 : 역대지하 33장

제목 : 겸손, 므낫세와 아몬의 차이

1-11 므낫세(14대왕)가 행한 악한 일

해석: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났다.

적용: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자. (예배, 갈등, 여름 공동체 생활의 참여 등) 신앙의 권면을 듣자.

12-20 : 므낫세가 행한 선한 일의 결과

해석: 고통은 겸손해지는 기회로 삼자. 어려움으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겸손해지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

적용: 어려움으로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자.(방법은 기도를 통한 겸손함)

21-25 아몬의 평가

해석: 신앙의 전수는 좋고 즐겁고 평화로운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어려울 때에 진정한 신앙이 전해진다. (결정적 사건)

적용: 신앙을 잘 전하자.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이야기들을 나누자.(방모임의 힘. 말씀이 실생활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실증하는 것)

사람의 때

잠언 3장에 보면 매사엔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60여 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 시기마다 다양한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고 키울 때는 인내하며 아이들을 잘 돌보라는 때를 주셨고, 또 나에게 기업을 주셨을 때는 열심히 세우라는 때도 주셨다. 다 자란 자식을 어렵지만 다 내려놓으라는 시기도 있었고, 심었던 것들이 다 뽑히고 흩어지는 것을 보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는 때도 주셨다. 또한 서로 사랑하기도 했지만 미움이 커져서 무거워진 짐을 지고 살아가는 때도 있었다.

사람마다 많이 웃고 많이 우는 인생의 깊이와 넓이는 다르겠지만, 잠언 저자는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고 하시니, 나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나의 가정 및 사랑방공동체는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가를 성찰해 보고 있다. 성경에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쓰여 있다. 나의 생각, 경험, 식견은 제한적인지라 현재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해, 때론 좌충우돌하고 혼란스러워 헤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믿기에, 불필요한 감정들을 털어버리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죽음도 삶의 일부임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저 주어진 일과 일상의 삶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탁 드리며 살아 내려 하고 있다. 바라움기는 사랑방공동체의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주의 권능을 부어 주사 잘 견디며 이겨내게 하시고, 지체 간의 관계와 공동체의 아픔들이 다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분별하며 나아가길 기도드린다. 또한 내 노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 지체들과 더불어 편안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사람이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땅한 노릇입니다” 따뜻한 사랑방 강촌자 권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요한복음 4 : 23-24 인도자
3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시편 145 : 8-9 인도자
293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사도행전 16 : 25-34 설교자
비 준비하시니 미리대사랑방
“대접, 구체적인 선교 방법”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38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허철영 강춘자/ 봉헌위원 : 강춘자/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대접, 구체적인 선교 방법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대접하였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 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25> 그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차꼬가 풀렸습니다. <26> 이 일로 간수는 자결하려 하였으나 바울이 만류하였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는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27-33>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34>

대접은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죄와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 상태가 겉으로 대접하는 행위로 표현됩니다. 선교의 결과는 기쁨의 대접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역으로 대접이라는 행동을 먼저 제시하면, 선교에 참여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선교의 결과로 대접을 하게 되지만, 거꾸로 대접은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이 됩니다.

대접함으로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개인, 공동체)가 존재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선교의 더 구체적인 방법은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 대접하는 삶이 많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며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대접은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채영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1학기를 마무리하며 학부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만나기 전 교사들은 한 친구 한 친구의 여러 면모를 다시 들여다보며, 친구들의 특성과 한 학기 동안 성장한 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꾸러기들 모두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부모님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꾸러기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보듬는 마음도 함께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상담시간도 기대합니다.

꾸러기학교도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 전 마지막 수요일에는 각자 사물함을 정리하고 한 학기 동안 사용했던 의자를 닦았습니다. 방학 동안 학교에 못 와서 섭섭하다고 말하는 꾸러기들도 있고 방학 동안 이것저것 놀 생각에 벌써부터 잔뜩 신난 꾸러기들도 보입니다. 사랑하는 꾸러기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8월 24일에 꾸러기학교에서 다시 만나요!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월요일에는 여는 모임을 마치자마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학과 수업 마무리는 모두 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뭘 할까 고민하다가 방학 맞이 이벤트 삼아 시원하고 편안한 영화관으로 나들이를 간 것이지요. 단체 할인도 받고, 한 관을 어린이가 전세 내서 본 영화는 픽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Elemental>. 화려하고 참신한 그림들이 우리 친구들의 시선을 뺏어갔지요. 영화를 다 보고는 학교로 돌아와서 이번 학기 마지막 학교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베다니하 늘주방 요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2시부터는 악기 테마 중에 오카리나와 리코더를 연습하는 친구들이 꾸러기학교에 가서 미니 연주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청 떨었지만 잘 이겨내고 연주했어요. 이렇게 다른 이들 앞에서 자신이 연

습하는 것을 선보이면 평소보다 실력이 확 늘 것 같아요.

이어서, 7월의 섬김이로 뽑힌 권도현, 정아영 어린이에게 9월에 사용할 수 있는 ‘음료 한 잔 권’, 6월에 도서관 책을 가장 알차게 읽은 최민용, 최시현 어린이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선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를 후 생일인 주은이 축하도 미리 당겨서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방학 숙제가 있는 방학안내문을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린이학교는 화요일부터 여름방학입니다. 벌써부터 물놀이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또 미루지 않고 방학 숙제를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애들아, 한 학기동안 크느라 고생 많았어!~, 잘 지내다가 8월 24일에 만나자~”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에서는 한창 부모님 면담이 진행중입니다. 학기말 부모님 면담에서는 한 학기동안 멋쟁이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성장해왔는지, 또 방학생활과 2학기를 위한 이야기도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으로서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평가한 평가서와 선생님님이 작성한 평가서를 읽으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성장과정에 있는 자녀의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듣고,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과 에피소드들로 놀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사로서는 방학생활을 보내고 있는 멋쟁이들의 소식도 듣고, 학기말 면담과 피드백을 통해 수립된 계획들이 잘 수행되었는가 알아볼 기회이며, 교육의 핵심적인 장인 가정과 학교의 연결이 강화되는 시간입니다. 한 학기, 한 학기 달라지고 멋있어지는 멋쟁이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믿고 맡겨주신 모든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멋쟁이들도 즐거우면서도 뜻깊은 방학의 시간들로 방학 시간을 잘 채우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생각해 보면 교회 생활은 내게 행복이었다

어린 시절, 교회는 집에서 가까웠다. 다닥다닥 붙은 집들에서 대여섯 집만 지나면 교회였다. 집에서는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막 뛰어서 교회에 가곤 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엄마 따라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 6남매 사이에서, 오직 나만 엄마와 나란히 앉기도 하고 그 옆에 누워서 바라보는 천장의 불빛은 항상 포근했다. 또 초등학교 때는 여름성경학교가 기억이 난다. 이른 아침에 교회를 가면 평소에 10시에 가던 때랑은 세상의 빛깔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너무도 푸른 하늘과 싱그러운 아침 공기가 가슴을 설레게 했다. 중, 고등학교 때의 교회 생활은 쉼이었고 여유였고, 즉 숨통이었다. 여름이면 나무 그늘에 앉아 밤 깊어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던 때가 많았다. 그때는 밤 12시가 통금이었는데 그래도 교회의 마당은 그 통금에서 제외됐고, 부모님은 다 큰 딸아이의 밤늦은 귀가에도 '교회에 있었어요' 라면 그냥 통과였다. 무슨 이야기가 그리 많았는지-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화제는 끝도 없었고, 그 대화들의 하이라이트는 여름 수련회였다. 밤새도록 이야기도 하고, 찬양도 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고,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갔었다. 조금 컸다고 의견이 다른 교사와 다투기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기도의 힘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사랑방공동체의 여름이다. 사랑방공동체의 여름은 항상 '가족과 함께'였다. 찌는 듯한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지내는 여름 공동체생활이었는데도 참 즐거웠다. 남편과 함께 공유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행복이었다.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다시 여름 공동체생활이다. 이제는 나이만큼이나 해야 할 분량의 일들이 있지만 기다리는 이 순간이 설렌다. 행복하다.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95, 421, 438

성경 : 누가복음 19장 1절~10절

말씀 : 예수님을 만나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이상기후로 인한 세계의 폭염, 폭우>
아시아 전역은 홍수로 유럽과 미국은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장마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해주시고 복구와 일상으로의 회복이 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 한마당>
8/17-19 까지 포항에서 있을 한공협 한마당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많은 위로와 사귄 그리고 삶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여름공동체생활>
사랑방 식구들이 공동체생활에 기대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모두 참여하여 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방학을 맞아 공동 식구들끼리 식사를 하니 이야기를 나누느라 쉽게 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일이 바빠 길게 만나지 못했었는데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니 참 좋습니다.

여유로운 가운데서도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그간 밀려던 일들을 하느라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특히, 밭에서 작물을 돌보고 정리하는 일은 땀별에서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각 처에 숲을 이룬 풀들과의 싸움은 매일 매일 계속되었고, 여름 공동체생활 준비로 여러 곳을 정비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퍽해진 주차장이 이제야 마르나 했더니 다시 비가 내립니다. 계속되는 장마. 큰비에 우리 사랑방 식구들 모두 별 탈 없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